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8월 27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이사야 58장 13-14절

설교제목 : “안식일을 지키면”

레위기 에 나타난 여호와 의 절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은 창조규례입니다. 창조규례란 창조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써 창조규례가 지켜지면 복을 받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칠일안식교도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을 붙들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성경에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일성수가 존재합니까? 그것은 논리적 유추의 결과 때문입니다. 가령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리적 유추입니다. 신약 전체를 보니까 삼위일체가 유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구석 구석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유추해서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에는 주일성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구석 구석에 주일성수가 나옵니다. 그 근거를 보면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날이 주일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 날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 모두 안식 후 첫 날 즉 주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날에는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안식 후 첫 날 즉 주일에 제자들을 만났다고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의도성이 담긴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은 제자들과 만나는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주님이 제자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만나는 날로 기대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주일을 주님의 날로 규정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날로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안식 후 첫날에 반복적으로 모였습니다.(행 20:7/고전 16:2/계 1:10) 이처럼 우리는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 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모이기에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유두고 사건에서 유두고의 이름을 보면 당시 노예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노동자, 노예, 하층계급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집회는 노동을 마치고 밤에 모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자정 혹은 새벽 1-2시까지 지속된 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여한 유두고가 피곤에 압도되어 잠을 잔 것입니다. 유두고 사건을 보면서 예배시간에 조는 자들과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가지고 유두고가 예배시간에 조는 사람과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유두고의 모습은 주일에 모여 예배드림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강론을 들으면서 주님의 현현을 기대한 것입니다. 결국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주님의 현현이 나타났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주일성수와 예배에 힘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성수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일성수와 공동체 예배는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안식일의 규례중 하나가 성회로 모임을 강조합니다. 왜 공동체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절대로 주일성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철저히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주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죽음과 같은 현실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었다는 근거를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58장은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입니다. 속죄일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식이고, 둘째는 안식입니다.(레23:26-32) 따라서 이사야 58장 1-12절까지 금식규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속죄일은 금식과 더불어 노동을 금지합니다. 노동을 금지하는 것은 안식규정입니다. 따라서 레23:32에 보면, 쉼 안식이라고 합니다. 쉼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일 즉 7월 10일은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안식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일의 안식일을 레16:31에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합니다. 속죄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질 참된 안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일의 안식일은 주일의 개념을 보여주는 예표적 개념입니다. 안식일의 안식일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주일이 즐거운 날입니다. 존귀한 날입니다.(13절)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복된 날입니다. 따라서 주일성수를 생명처럼 지킵니다. 그러면 주일성수를 하면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우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14절)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면 여호와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물댄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이란 믿음 안에서 누리는 승리입니다.(합3:19)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성수 이후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적전쟁을 치루게 되는데, 날마다 승리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복받는 날입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갖지 못하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억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되물림하십시오. 주일성수가 무너지면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일은 여러분이 복받는 날입니다.

#### ※.말씀 생각해 보기

- 1) 주일성수란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일성수란 말이 존재하는지 설명해 봅시다.
- 2) 속죄일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인터넷 예배와 주일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무엇이 다른지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